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Daily Hassles According to Children's Sex and Types of Aggression

김지현(Jihyun Kim)¹⁾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daily hassles by children's sex and types of aggression. Subjects were 200 children in 4th, 5th, and 6th grade and their mother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struments were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Scale (Kim, 2006),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Lee, 1997), the Daily Hassles Scale (Min & Yoo, 1998), and the Peer-nomination Measure (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Findings revealed that the relational aggressive group had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e daily hassles; girls had higher level of daily hassles than boys.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did not differ by child's sex and type of aggression.

Key Words :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

I. 서 론

아동은 출생 초기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며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하면서 발달한다. 연령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은 달라지는데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¹⁾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Kim,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Haengdang 1 Dong, Seongdong Gu, Seoul 133-791, Korea
E-mail : jihyunkim@hycu.ac.kr

또래 관계에서의 바람직한 경험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기 공격성은 또래 거부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Coie & Dodge, 1998), 아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어려움을 예측하는 행동적 요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아동의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때리기, 밀기 같은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외현적 공격성과 아동의 성,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정보처리과정과 같은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들은 외현적 공격성이 남아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신체적 체벌 혹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과의 관계에서는 공격적인 아동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왜곡을 보여 중립적인 단서를 적대적인 단서로 잘못 해석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Coie & Dodge, 1998; Crick, Grotper, & Bigbee, 2002).

최근 공격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접근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격성의 유형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다양한 변인들이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지현·박경자, 2006; 이은주, 2001; 신유림, 2008; 심희옥, 2003; Crick, 1997).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들 사이에 관계를 조절하고 방해하여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거나 소문내기 같은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주는 공격적인 행위이다(Crick, 1997).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rick & Grotper, 1995). 그러나 Rye와 Bear(1997)는 3학년과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Tomada와 Schneider(1997)는 이태리 3, 4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남아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서 여아보다 높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차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은주(2001)의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높으며, 심희옥(2003)의 4-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우세했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4-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우세하게 나타났다.

최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사회화 과정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격성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을 모방하거나 관찰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배운다(Bandura, 1983). 외현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가족 내에서 공격적인 모델과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가정을 지지한다(Dodge, 1991). 관계적 공격성과 가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도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되는 부모를 가졌고(Crick, Casas, & Ku, 1999),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부모를 관계적으로나 외현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지각한다고 설명한다(Grotper & Crick, 1996).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asas (2003)는 아버지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의 정도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과 상관이 있어 아버지가 허용적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Campbell(1995)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방식, 비일관적인 훈육이 관계적 공격성과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Nelson과 Crick(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딸의 관계적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McNeill(2002)은 부모의 훈육 실제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부모 또는 가족의 영향과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며, 부모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사회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김지현 · 정지나 · 권연희 · 민성혜, 2009). 따라서 공격성의 유형별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들 사이에 관계를 조절하고 방해하여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거나 소문내기 같은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주는 공격적인 행위라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 때문에 또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아동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때리기, 밀기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잘 아는 아동의 경우 관계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정서 조절, 타인정서 조절, 자기정서 인식, 타인정서 인식의 영역으로 측정되는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정경택(2003)의 연구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폭행, 간접 공격, 부정성, 흥분성 및 공격성 전체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연구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이 정보처리과정의 왜곡을 보여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공격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의 경우도 성,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과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지능,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라 각 변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현적 공격적 아동과 관계적 공격적 아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 공격적 유형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지능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나 부모 그리고 교육이

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지능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공격성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4개 초등학교의 4학년 63명(남아 45명, 여아 18명), 5학년 61명(남아 39명, 여아 22명), 6학년 76명(남아 55명, 여아 21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139명(69.5%), 여아 61명(30.5%)으로 남아가 더 많았다.

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에서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3곳,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을 임의 표집한 후 4~6학년에서 각 12학급씩 총 36학급에서 1,69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대한 또래 지명을 실시하였다. 또래 지명 검사 결과 각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학급별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한 표준점수에 의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학급별로 1 표준편차¹⁾ 이상인 아동을

1) 또래 지명을 통해 공격적인 아동을 선정한 선행연구(예, Crick & Werner, 1998; Crick, Grotmeter, &

<표 1>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 수

	남	여	전체
외현적 공격적 아동	45	7	52
관계적 공격적 아동	17	36	53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	77	18	95
전체	139	61	200

각 집단에 선정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 52명(남아 45명, 여아 7명),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 53명(남아 17명, 여아 36명),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높은 아동 95명(남아 77명, 여아 18명)으로 집단 구분을 하였다(<표 1> 참조²⁾).

대상 아동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46.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26.2%)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59.0%)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졸(16.9%)로 나타났다. 가계의 수입은 300-400만원대(30.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대(30.2%)였다.

2. 측정 도구

1)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 지명 도구(Crick, 1995; Crick & Grotmeter, 1995)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Bigbee, 2002)에서 사용한 방법이며 정규분포곡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는 대략 16%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격성 점수가 높은 상위 16%의 아동을 공격성이 높은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Crick, Grotmeter, & Bigbee, 2002) 그렇지 않은 경우(Crick & Werner, 1998)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빈도가 외현적 공격적 아동과 관계적 공격적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여섯 문항(예 :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차고, 주먹질 하는 친구),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여덟 문항(예 :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친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과 연구 목적과는 무관하나 부정적인 문항과의 균형을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네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대상 아동은 각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반 친구를 성에 상관없이 세 명까지 지명하였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는 횟수를 합산하여 각 문항에 대해 학급별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한 뒤, 아동 개인별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한 표준점수에 의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학급별로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을 각 집단에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적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1,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5였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 조사³⁾를 거쳐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은 온정·수용(8문항), 비일관적 훈육(6문항), 신체적 체벌(5문항), 관리·감독(5문항)에 대한 24문항이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행동을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온정·수용이 .84, 비일관적 훈육이 .77, 신체적 체벌이 .71, 관리·감독

이 .71이었다.

3) 정서 지능

정서지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 지능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정서조절 영역은 8문항, 타인정서조절 영역은 9문항, 자기정서인식 영역은 7문항, 타인정서인식 영역은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며 자기정서조절 영역에는 ‘게임에 졌을 때 화내지 않고 결과를 수용한다’, 타인정서조절 영역에는 ‘친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위로할 줄 안다’, 자기정서인식 영역은 ‘걱정스러울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타인정서인식 영역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잘 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자기정서조절이 .76, 타인정서조절이 .82, 자기정서인식이 .80, 타인정서인식이 .88이었다.

4)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제작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 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5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동은 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90,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이 .89, 학

3) 어머니 양육행동 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예비조사 절차 및 요인분석결과는 김지현(2006)의 자료를 참고할 것.

업관련 스트레스가 .88,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이 .85,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가 .82였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의 연구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아동 200명이었다.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2명이 대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6학년 아동 1,692명을 대상으로 또래 지명검사를 실시하였다. 또래 지명 검사를 통해 공격성이 높게 나온 아동만을 뽑아서 다른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아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내용(Crick & Werner, 1998)과 초등학교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초등학교 전체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용 질문지(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와 아동용 질문지(일상적 스트레스)를 실시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또래지명검사 직후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또래지명검사와 아동용 질문지가 끝난 직후 아동들에게 배포하였고 봉투에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함께 질문지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 비밀 보장에 대한 것과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동봉하였다. 담임 교사에게는 아동들이 어머니용 질문지를 갖고 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질문지 수거를 위해 본 연구자가 또래지명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주일 후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회수된 어머니용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경우는 1,470부였고 이 중 공격성 점수가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 200명과 그들의 어머니 200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및 모형 검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지능, 일상적 스트레스의 각 하위 영역에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하위 영역별 점수에 대한 성(2)×공격성 유형(3)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관리·감독이 8.7, 온정·수용이 14.5, 신체적 체벌이 9.0, 비일관적 훈육이 9.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관리·감독이 1.7점, 온정·수용이 1.8점, 신체적 체벌이 1.8점, 비일관적 훈육이 1.7점으로 이는 4점 척도 중 2점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감독, 온정·수용, 신체적 체벌, 비일관적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지능의 경우 자기정서조절의 평균 점수는 20.5점, 타인정서조절의 평균 점수는 28.6점, 자기정서인식의 평균 점수는 20.0점, 타

인정서인식의 평균점수는 22.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자기정서 조절은 2.6점, 타인정서조절은 3.2점, 자기정서 인식은 2.9점으로 4점 척도 중 2점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3점인 ‘대체로 그렇다’ 사이에 분포하였다. 타인정서인식의 경우는 3.7점으로 이는 4점 척도 중 4점인 ‘매우 그렇다’에 해당했다. 이는 대상 아동들이 중간 수준 이상의 정서지능을 보이며 타인정서인식을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영역보다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지능점수의 평균 점수를 공격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현적 공격적 아동의 정서지능총점이 90.7점, 관계적 공격적 아동의 정서지능총점이 93.8점,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의 정서지능총점이 90.4점으로 나타나 관계적

공격적 아동의 정서지능점수가 다른 두 유형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42.8점,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이 19.5점,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20.5점,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이 16.9점,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가 11.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2.1점,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이 2.0점,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이 2.4점,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가 1.9점으로 4점 척도 중 2점인 ‘별로 받지 않는다’에 해당한다.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경우는 2.6점으로 4점 척도 중 3점인 ‘약간 받는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상 아동들은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스트레스,

<표 2>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200)

측정변인	외현적 공격적 아동 (n=52)	관계적 공격적 아동 (n=53)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 (n=95)	전체 (N=200)	
	M(SD)	M(SD)	M(SD)	M(SD)	
어머니 양육행동	관리·감독	9.0(1.7)	8.7(1.7)	8.6(1.5)	8.7(1.6)
	온정·수용	14.3(3.2)	14.4(3.2)	14.6(3.2)	14.5(3.2)
	신체적 체벌	8.7(2.1)	9.3(1.9)	9.1(2.6)	9.0(2.3)
	비일관적 훈육	10.3(2.2)	9.9(2.4)	9.6(2.6)	9.9(2.5)
	양육행동 총점	42.4(5.4)	42.3(6.1)	41.9(6.4)	42.1(6.1)
아동의 정서지능	자기정서조절	20.7(3.5)	20.7(3.5)	20.3(3.6)	20.5(3.5)
	타인정서조절	28.3(3.9)	29.3(3.5)	28.4(3.6)	28.6(3.7)
	자기정서인식	19.9(2.8)	20.2(2.5)	19.9(2.7)	20.0(2.7)
	타인정서인식	21.7(3.5)	23.5(2.8)	21.8(3.7)	22.2(3.5)
	정서지능 총점	90.7(10.2)	93.8(8.6)	90.4(10.2)	91.4(9.8)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	43.1(12.5)	45.8(13.4)	40.9(12.4)	42.8(12.8)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	18.6(8.1)	22.5(7.4)	18.3(6.9)	19.5(7.5)
	학업관련 스트레스	19.1(6.9)	22.5(6.0)	20.1(7.3)	20.5(7.0)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	16.6(6.3)	19.2(5.9)	15.7(5.8)	16.9(6.1)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	10.9(4.1)	13.1(5.0)	10.9(4.7)	11.5(4.7)
스트레스 총점	108.3(31.1)	123.1(32.1)	105.9(29.0)	111.1(31.1)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	27.4(15.3)	8.8(5.0)	49.5(29.7)	33.0(27.9)
	관계적 공격성	15.7(5.3)	34.0(13.6)	47.8(26.7)	35.8(23.8)

<표 3>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 점수의 공격성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200)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외현적 공격성 집단 (n=52)	관계적 공격성 집단 (n=53)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n=95)	
어머니 양육행동				
관리·감독	9.0(1.7)	8.7(1.7)	8.6(1.5)	0.78
온정·수용	14.3(3.2)	14.4(3.2)	14.6(3.2)	0.23
신체적 체벌	8.7(2.1)	9.3(1.9)	9.1(2.6)	0.23
비일관적 훈육	10.3(2.2)	9.9(2.4)	9.6(2.6)	0.43
양육행동 총점	42.4(5.4)	42.3(6.1)	41.9(6.4)	0.05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교·교사관련 스트레스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역시 관계적 공격적 아동(M=123.1)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M=108.3)과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M=105.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여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Z점수가 사용되었지만 <표 2>에서는 이해를 돕고자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의 문항 평균이 5.5점,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 평균이 4.5점이었다. 이는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아동이 한 반에서 각 문항당 6명 정도,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아동이 한 반에서 각 문항당 5명 정도에게 공격적이라고 지명 받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2.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1)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별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은 긍정적 측면인 관리·감독, 온정·수용 그리고 부정적 측면인 신체적 체벌, 비일관적 훈육의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원변량분석 결과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외현적, 관계적,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표 4> 참고).

<표 4>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영역 점수의 남녀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200)

연구 집단	평균(표준편차)		F
	남 (n=139)	여 (n=61)	
어머니 양육행동			
관리·감독	8.8(1.6)	8.6(1.7)	0.60
온정·수용	14.4(3.2)	14.6(3.1)	0.10
신체적 체벌	9.0(2.3)	9.2(2.2)	0.12
비일관적 훈육	9.7(2.6)	10.3(2.3)	2.97
양육행동 총점	41.9(6.2)	42.7(5.8)	0.61

<표 5>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 영역 점수의 공격성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200)

아동의 정서지능	연구 집단	평균(표준편차)			F
		외현적 공격성 집단 (n=52)	관계적 공격성 집단 (n=53)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n=95)	
자기정서조절		20.7(3.5)	20.7(3.5)	20.3(3.6)	0.67
타인정서조절		28.3(3.9)	29.3(3.5)	28.4(3.6)	0.71
자기정서인식		19.9(2.8)	20.2(2.5)	19.9(2.7)	0.42
타인정서인식		21.7(3.5) _b	23.5(2.8) _a	21.8(3.7) _b	3.46*
정서지능총점		90.7(10.2)	93.8(8.6)	90.4(10.2)	0.86

주 : a, b는 Scheffé 검정 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난 집단임.

* $p < .05$

2)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이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별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지능의 이원변량분석결과 타인정서인식에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2, 188}=3.46, p<.05$). 공격성 유형의 사후검증 결과 외현적 공격성 집단, 관계적 공격성 집단,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23.5$)이 외현적 공격성 집단($M=21.7$)과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M=21.8$) 아동보다 다른 사람

에 대한 정서를 더 잘 인식했다(표 5). 그러나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6).

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공격성의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이원변량분석결과 친구관련스트레스-소외감($F_{2, 188}=4.83, p<.01$), 친구관련스트레스-위협감($F_{2, 188}=4.36, p<.05$),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F_{2, 188}=3.23, p<.05$)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F_{2, 188}=3.08, p<.05$)에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표 7).

공격성 유형의 사후검증 결과 외현적 공격성 집단, 관계적 공격성 집단,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친구관련스트레스-소외감에서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22.5$)이 외현적 공격성 집단($M=18.6$)과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M=18.3$) 아동보다 친구에서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스트레스-위협감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19.2$)이 외현적·

<표 6>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영역 점수의 남녀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200)

아동의 정서지능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남 (n=139)	여 (n=61)	
자기정서조절		20.4(3.7)	20.8(3.1)	0.86
타인정서조절		28.2(3.7)	29.7(3.2)	2.61
자기정서인식		20.0(2.8)	20.1(2.4)	0.14
타인정서인식		21.7(3.7)	23.4(2.8)	0.99
정서지능총점		90.2(10.5)	94.0(7.6)	1.40

<표 7>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영역 점수의 공격성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200)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외현적 공격적 집단 (n=52)	관계적 공격적 집단 (n=53)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 (n=95)	
부모관련스트레스		43.1(12.5)	45.8(13.4)	40.9(14.2)	2.06
친구관련스트레스-소외감		18.6(8.1)b	22.5(7.4)a	18.3(6.9)b	4.83**
학업관련스트레스		19.1(6.9)	22.5(6.0)	20.1(7.3)	0.29
친구관련스트레스-위협감		16.6(6.3)	19.2(5.9)a	15.7(5.8)b	4.36*
교사·학교관련스트레스		10.9(4.1)	13.1(5.0)a	10.9(4.7)b	3.23*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		108.3(31.1)	123.1(32.1)a	105.9(29.0)b	3.08*

주 : a, b는 Scheffé 검정 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난 집단임.
*p<.05 **p<.01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15.7) 보다 친구에서 위협당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에서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13.1)이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10.9) 보다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에서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123.1)이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M=105.9) 보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관련스트레스에서는 성에 따른 주효과(F_{1, 188}=8.52, p<.01)가 유의하였는데 여아(M=23.3)가 남아(M=19.3) 보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유형과 성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

<표 8>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영역 점수의 남녀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200)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남 (n=139)	여 (n=61)	
부모관련 스트레스		41.7(12.0)	45.1(14.2)	1.49
친구관련스트레스-소외감		18.9(7.6)	20.8(7.3)	0.10
학업관련스트레스		19.3(7.0)	23.3(6.2)	8.52**
친구관련스트레스-위협감		16.3(6.1)	18.0(6.2)	0.23
교사·학교관련스트레스		11.2(4.5)	12.2(5.1)	0.03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		107.4(30.2)	119.4(31.6)	1.33

**p<.01

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외현적 공격적 집단 아동,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각 유형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은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신체적 체벌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의 자녀가 외현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Joussement et al., 2008).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도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되는 부모를 가졌고(Crick, Casas, & Ku, 1999),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부모를 관계적으로나 외현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지각한다(Grotperter & Crick, 1996). Crick과 동료들은(1999)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이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보다 친밀한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의 자녀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공격성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공격성 유형에 관계없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중 관리·감독, 온정·수용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가 보이는 특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양육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인 신체적 체벌과 비일관적 훈육 역시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양육행동 질문지에 반응을 하는데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체적 체벌

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체적 체벌을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의 경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관찰 등과 같은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연령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가 높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하위 요인 중 비일관적 훈육, 신체적 체벌, 관리·감독의 신뢰도가 .71~.77수준으로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공격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타인정서인식 영역에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했다. 즉 타인정서인식에서 공격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이 외현적 공격성 집단과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를 더 잘 인식했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 집단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경희·오경자, 1998; Bjorkquist, Osterman, & Kaukianen, 1992). 선행연구들은 관계적 공격성이 또래 집단에서 맥락을 잘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이경희·오경자, 1998), 관계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여아들은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사회적 지능 수준이 높다고(Bjorkquist, Osterman, & Kaukianen, 1992) 보고하고 있다. 즉,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적 행위이며 동시에 또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유

림, 2008).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가 다름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감정과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래, 1997).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bbard & Coie, 1994).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의 정서지능이 다른 집단 아동의 정서지능보다 높다는 점, 특히 타인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다는 점은 관계적 공격적 아동 집단이 또래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다른 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공격적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외현적 공격적 특성을 보이는 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적 행동에 대한 또래의 인식, 교사의 인식, 그리고 부모의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동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또래에 대해서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또래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Crick, Bigbee, & Howes, 1996), 교사 및 부모의 인식도 그러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 및 교사는 또래 관계를 아동이 경험하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관계적 공격적 아동을 유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김지현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들이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에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어머니 개입 전략의 평균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들은 어머니들이 외현적 공격성을 보다 해롭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관계적 공격성을 덜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김지현 외,

2009; Werner, Senich, & Przepyszny, 2006).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성인이 별로 해롭지 않다고 인식할 경우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이 늦어지게 되고 향후 이 아동은 자신의 공격적 행동으로 여러 측면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적 공격성의 행동적 특성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사 및 부모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 교사·학교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에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의 경우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이 다른 두 집단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 교사·학교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이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한미연·유안진, 1996; 한태희·홍상황, 2004). 한미연과 유안진(1996)은 4학년과 6학년생의 과잉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그리고 미성숙 행동은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를 다룬 한태희와 홍상황(2004)의 연구에서도 내재화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이 다른 집단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특히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그만큼 친구 관계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경주(1997)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 이기숙과 박소영(200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환, 한종혜와 박성옥(1998)의 연구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과 경기도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공격성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McLoyd, 199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행동 및 어머니 양육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을 어머니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아동의 학교를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 보고를 통해 아동이 지

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거나 관찰 및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현적 공격적 집단이 26%, 관계적 공격적 집단이 26.5%, 그리고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이 전체의 47.5%였다. 김지현과 박경자(2009)의 연구에서도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공격성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고, 외국 연구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대부분의 아동은 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Crick & Grotpeter, 1995), 두 가지 공격적 행동을 모두 높게 보이는 아동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공격성을 높게 보이는 집단 특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과 공격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하고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에 따라 공격성 유형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제한점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변인들이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과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의 정서지능이 다른 집단 아동보

다 높게 나타났고, 관계적 공격적 집단 아동이 다른 집단 아동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보인다는 특성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지현(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지현·정지나·권연희·민성혜(2009). 유아의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2), 145-159.
- 김지현·박경자(2009).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사회정보처리과정 : 해석단계와 반응결정단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1), 105-113.
- 김지현·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민하영·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 77-96.
- 신유림(2008). 유아기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 성차 및 언어,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8(2), 95-111.
- 심희옥(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유능성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4(3), 79-92.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오경자(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 포스터발표 논문집*, 173-187.
- 이기숙·박소영(2000).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련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9), 93-106.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한중혜·박성옥(1998).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73-86.
-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12, 151-162.
-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 173-188.
- 한태희·홍상황(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 1-21.
- Bandura, A. (1983). Psychological mechanisms of aggression. In R. G. Green & E. I. Donnerstein (Eds.), *Aggression : Theoretical and empirical views*(Vol.1, pp.101-140). New York : Academic.
- Bjorkquist, K., Osterman, M. D., & Kaukia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Campbell, J. J. (1995). Familial antecedents to children's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6-B), 2980.
- Casas, J. F. (2003).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used of relational aggression in prescho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3(10-B), 4940.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s.), W. Damon(Serie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New York : Wiley.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 childhood* (pp.17-5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 How do I hurt thee? Let me count the ways. *Child Development, 67*, 1003-1014.
- Crick, N. R., Casas, J. F., & Ku, H.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76-38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rick, N. R., & Werner, N. E.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 Markon, K. (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 (Eds.), *Gender and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45(pp.75-141). Lincoln, NE : University Press.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201-218). Hillsdale, NJ : Erlbaum.
- Grotpeter, J. K.,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Joussement, M., Edward, F. V., Baker, D., Cote, S., Nagin, D. S., Zoccolillo, M., & Tremblay, R. E. (2008). Controlling parenting and physical aggression during elementary. *Child Development, 79* (2), 411-425.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McNeill, S. K. (2002).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discipline practices, gender, and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2*(11-A), 3701.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Eds.), *Intrusive parenting :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61-189).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ye, G. S., & Bear, G. C. (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 :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87-106.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Socially undesirable need not to be incompetent : A response to Crick and Dodge. *Social Development, 8*, 132-134.

Tomada, G., & Schneider, B. H. (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over time,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01-609.

Werner, N. E., Senich, S., Przepyszny, K. A. (2006). Mothers' responses to preschooler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93-208.

2009년 8월 24일 투고, 2009년 10월 28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